

제시문 (가),(나),(다),(라)는 공통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제시문은 개인과 사회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도는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논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우열관계를 나타낸다면 그 답은 (가),(라),(다),(나)이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합리적 원칙을 사회 전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상적 개인인 공평한 관망자를 가정한다. 이 공평한 관망자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한 매개일 뿐이며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공평한 관망자를 통해서 개인의 원칙이 사회 전체에 퍼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시문 (가)는 타 제시문보다 압도적으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앞에 위치하게 된다.

제시문 (라) 또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그 반대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제시문 (가)보다 약하다. 제시문에 따르면 시민적 우의는 선한 개인들이 모여 서로 합의함으로써 구현된다. 즉, 공동의 의지, 시민적 화합은 개인들이 모여 그 의견들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축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민적 우의가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공유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는 제시문 (가)보다 순서가 뒤에 위치하게 된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개인이 사회에게 미치는 것보다 크다. 제시문은 개인은 도덕적이거나 집단은 비도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충동을 배격할 만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의 영향력이 개인의 영향력을 압도한 사례로써 사회의 영향력이 개인의 영향력보다 큼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와 (다)는 개인과 사회의 영향력에 대한 의견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시문 (다)가 제시문 (라) 뒤에 오는 것은 타당하다.

제시문 (나)는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 순서에 위치하는 것이 옳다. 제시문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태초부터 부여 받은 것으로써 이는 인간의 삶에 주어진 불변의 조건이며 삶의 출발점이다. 즉, 제시문은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